석유화학 가격경쟁력도 "내리막길"

무역연구소, 1999년 이후 일본수출 경쟁력 상실 … 중국은 호조세

일본수출 주력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일본수출이 악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발표한 [일본수출 부진요인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따르면, 전체 일본수출은 2001년 전년대비 19.3% 줄어든 데 이어 2002년에는 1-4월 감소폭이 전년동기대비 26.7%로 더욱 확대됐다.

특히, 일본 수출액의 55.2%를 차지하는 20대 품목의 수출실적은 2001년 24.8% 감소에서, 2002년에는 1-4월 35.3% 줄어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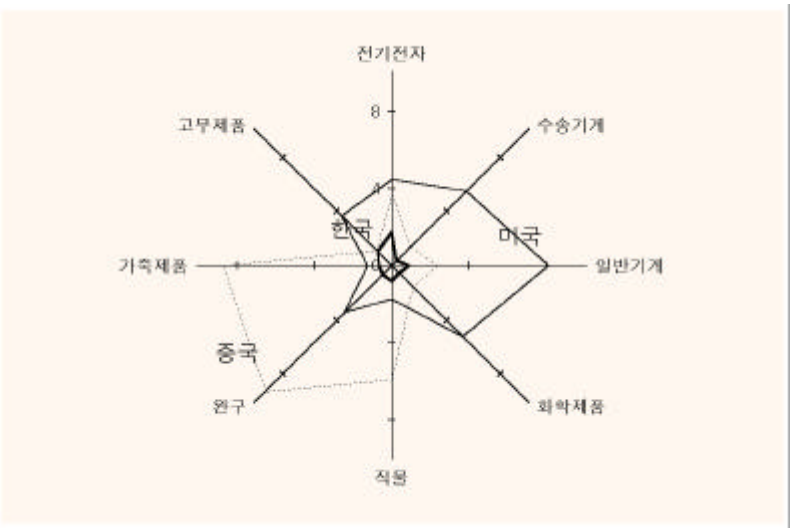
무역연구소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20대 품목의 종합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10개 비교우위 향상형 품목 가운데 일본 수입순위 20위에 드는 품목은 석유제품 등 4개에 불과했고, 그나마 디지털카메라, 컴퓨터기기, 기타 석유화학제품도 1999년 이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로도 유선전화기, 특수자동차 부품, 주조용 틀, 비디오테이프 등 4가지만이 증가세를 보였을 뿐 반도체, 컴퓨터기기, 열연평판 등 16개 품목이 모두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4%에서 2002년에는 3월말 현재 4.4%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제품의 점유율은 14.5%에서 17.4%로 높아졌다.

무역협회는 일본수출이 악화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일본 소비자들의 저가상품 선호도가 높아져 중국산보다 비싼 한국상품의 입지가 줄어드는 한편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상품 경쟁력도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시장에서의 한·미·중 3국의 경쟁상태



+ 우리나라의 일본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도해화한 것

또 국내 수출상품이 일본의 수입증가 품목과 일치하지 않는 교역구조상의 결합도 취약을 비롯해 △엔화 약세 △일본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둔화 △일본기업의 중국 등지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 확대 △일본정부의 관세·비관세 장벽 등도 일본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중가격-고품질 상품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첨단기술제품을 육성해 수출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10>